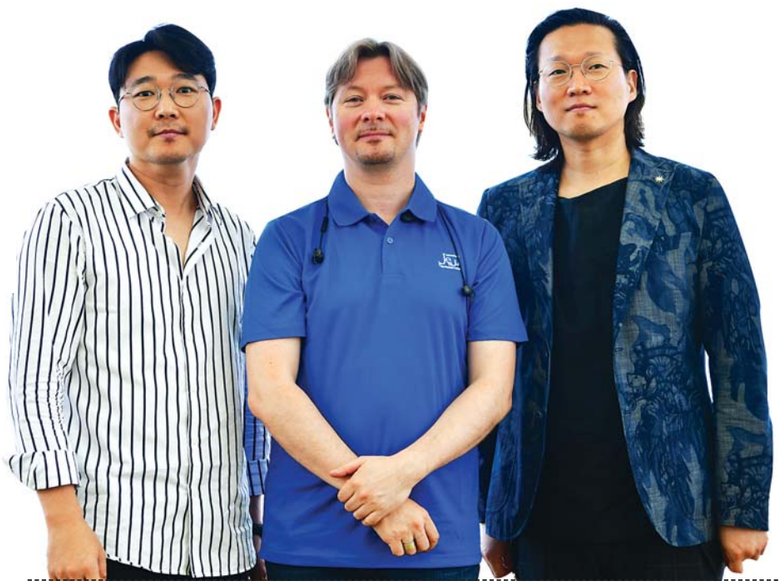
"윈드오케스트라와 첫 호흡… 공연 설렌다"

오늘 막 여는 '국제관악제' 개막 공연 협연자 3인

클라리넷 주자 조성호
도쿄 필하모닉 종신수석
서정적 선율 로시니 선곡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트럼펫의 파가니니' 불려
마에스트로 콘서트도 출연

카운터테너 이동규
헨델의 '울게 하소서' 등
관악단과 함께하는 무대



제주국제관악제 8일 개막 공연 협연을 맡은 조성호,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이동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제공

그들은 '설렘'을 말했다. 제주섬 국제관악페스티벌 개막 무대에 선다는 흥분, 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긴장감이 엇갈리면서 나온 표현이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이미 해외에서도 유명한 음악제"라는 말이 그저 '주례사'처럼 들리지 않았던 건, 그들의 두근거림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8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막이 오르는 제주국제관악제. 24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공연에 초대된 3명의 음악인이 앞서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진 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러시아 태생의 트럼페터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종신수석 클라리네스트 조성호, 카운터테너 이동규다.

이번이 네 번째 내한이라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는 일찍이 '트럼펫의 파가니니'로 불려온 최정상 연주자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흥이 나질 않았다. 허리를 다쳐 오래 앉지 못하게 되자 3년 동안 쳤던 피아노를 중단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트럼펫을 불었는데 피아노보다 좋았다고 했다. 9살에 시작해 1년 뒤 연주하게 된 곡이 개막 무대에 올려지는 아루투니안의 '트럼펫 협주곡'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트럼펫 곡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싶어 골랐다는 그다.

나카리아코프는 개막 연주회 말고도 마에스트로 콘서트(10일), 마스터클래스(11일)에 초청됐다. 마에스트로 콘서트에서는 피아노와 호흡을 맞춰 슈만의 '환상소곡집 작품 73' 등을 선사한다. "금관 악기로 연주하는 게 흔치 않은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선곡 배경을 설명했다. "음악 동료들에게 제주에 대해 많은 이야길 들었다"는 그는 첫 국제관악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곳이 작은 도시이든, 큰 도시이든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번 떨립니다. 청중들이 얼마나 제 음악을 즐기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성호는 도쿄 필하모닉 전체 단원들이 최종 선발 과정에 참여해 200여명을 제치고 클라리넷 수석으로 뽑힌 연주자다. 개막 공연 곡목은 윈드오케스트라 협연 사실을 뒤늦게 안 탓에 모차르트, 베버를 거쳐 서정성 짙은 로시니의 '클라리넷을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곡'으로 최종 낙점했다. 마에스트로 콘서트(10일)에서는 벨라 코바치의 '바흐에 대한 오마주' 등을 빚는다. 오케스트라 일원으로 연습이 일상인 그이지만 이번 협연을 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할애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하면 제주국제관악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오프닝 콘서트 협연 자체가 제겐 매우 영광입니다. 관악오케스트라와 합을 맞추는 일이 처음이라 사운드가 어떻게 전달될지도 궁금합니다."

목소리라는 악기를 가진 이동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최연소 입상 등 국제 콩쿠르를 휩쓸어왔다. 그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와 '축제의 나팔을 불어라'를 준비했다. 카스트라토가 나오는 영화 '파리넬리'의 주인공이 트럼펫 연주자와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꺼낸 이동규 역시 관악오케스트라와 공연하는 '색다른 경험'을 언급했다. 특히 저 유명한 '울게 하소서'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지 설렌다고 전했다. 그가 '18번'으로 꼽는 곡은 앙코르 무대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은 이들의 협연 앞뒤로 '제주'의 선율이 흐른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은 고창수의 '윈드오케스트라를 위한 3개의 제주민요', 최창권의 '살짜기 옵서예', 임긍수의 '솟아라, 한라여!', 고승익의 '이어도' 등을 연주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詩(시)로 읽는 4·3 (20)

3일 평화—4·3, 두 청년 이야기

오승철

죽어도 장부의 말은 죽지 않는 법이지
한낱 봄 꿈 같은 약속도 약속이라서
연둣빛 4·28 만남, 그 약속도 약속이라서

깃발 따라 짚차 한 대 쏙 들어간 구억초등학교
뒷산 조무래기들 꼼짝꼼짝 고사리 꼼짝
첫날밤 신방 엿보듯 훔쳐보고 있었다

조국이란 이름으로 공쟁이 걸지 말자
저 하늘을 담보한 김익렬 9연대장과 김달삼 인민유격대 사령관
산촌의 운동회같이 박수갈채 터졌다지

불을 끈 지 사흘 만에 다시 번진 산불처럼
다시 번진 산불처럼 그렇게 꿩은 울어, 전투중지 무장해제 숨바꼭질 꿩꿩, 오라리 연미마을 보리밭에 꿩꿩, 너븐숭이 섯알오름 4·3 평화공원 양지꽃 흔들며 꿩꿩, 그 소리 무명천 할머니 턱 밑에 와 꿔- 엉꿩
칠십 년 입술에 묻은 이름 털듯 꿩이 운다

1948년 4·3이 발생하고 25일 만인 4월 28일, 무장대 총책 김달삼(金達三)과 김익렬(金益烈) 국방경비대 9연대장은 구억초등학교에서 평화협상을 맺는다. 72시간 내 전투 중지, 점차적인 무장해제 등의 조항이었다. 두 사람은 '4·28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합의하지만, 사흘 후인 5월 1일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이 '오라리 방화사건'을 저지르고, 이를 경찰과 미CIC(방첩대), G-2(정보참모부)가 오히려 무장대의 방화로 뒤집어씌움으로써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만다. 우익청년단이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고, 5월 3일에는 미군이 경비대에게 총공격을 명령함에 따라 협상은 깨어진다.

결국 5월 5일 수뇌부 회의에서 김익렬은 조병옥 경무부장과 충돌하기에 이르고 제14연대장으로 전출되었다. 그는 중장으로 예편한 뒤, 1969년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제주4·3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말미암아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마지막으로 들고일어난 민중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경찰감찰청장, 제주군정관, 조병옥 경무부장, 군정청 딘 소장 등 한 사람이라도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다면 극소수의 인명피해로 해결 될 수 있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조각같은 입체적 캔버스에 단색 회화

이탈리아 쥬세페 아마디오의 모노크롬 회화 작품.

저지문화마을 갤러리 데이지
이탈리아 작가 아마디오 전시

'모노크롬 회화'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 쥬세페 아마디오(Giuseppe Amadio)의 작품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갤러리 데이지에서 그의 국내 첫 개인전을 마련했다.

아마디오 작가는 1980년부터 이탈리아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모노크롬 회화전을 이어오고 있다. 공간·광고 디자인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창작 활동을 펼쳐온 작가다.

"캔버스를 조각한다"는 평을 듣는 그의 작품은 전통 회화의 특성에서 벗어나 캔버스를 접고, 늘리고, 굴곡지게 만들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이를 단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탄생한다. 이를 통해 작품 전체에 극적인 역동성을 연출해낸다.

콘티누이타 그룹의 창시자인 피에로 도라치오(Piero Dorazio)는 그의 작업에 대해 "아마디오의 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며 시선을 사로잡아 버린다"며 "드라마틱한 단색과 곡선, 접힌 캔버스가 만들어내는 부조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작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막이 오른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한달 여 계속된다. 문의 064)772-4200. 진선희기자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제주문예재단 등 공동 연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연다.

제주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연수는 '필드노트-수집된 물질들'이란 주제 아래 제주 천혜자원인 '생태'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과정이다. 이달 22~23일 제주항공우주호텔에서 열리는 입문 과정에서는 제주 생태의 장소 특정적 소리와 이미지를 아카이빙하고 채집된 소리와 이미지를 사운드 기술과 시각 매체를 활용해 표현하며 생태환경에서 미적 교육요소를 탐색하게 된다. 11월에는 심화과정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이달 12일까지.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75. 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2억보증보험가입업체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착한패키지★
백두산완전정복/노쇼핑/노옵션
백두산 4일(5성급)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준5성호텔, 특식 2회, 전신마사지 1회
짚차 또는 봉고차를 타고 편리하게 천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백두산 북파코스
계단을 오르며 주변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백두산 서파코스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하고있는 비룡폭포(장백폭포)
유황성분이 가득한 백두산 자연온천 노천온천지대

노쇼핑/산위숙박
상해/황산 4일
7월~10월 매주 목,금요일출발
895,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57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산위 1박, 특식 2회

특급호텔
상해/주가각 or 디즈니랜드 4일
8~10월 매주 목/금출발
593,3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5,933적립
★4명출발★〈노쇼핑+일정 선택제〉

남들보다 특별한
방콕(초특급)/파타야(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쇼핑3회 제한〉
+전통안마2시간+알카자쇼+런치크루즈+왕궁

★착한패키지★
오감만족/노쇼핑/노옵션
방콕/파타야 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왕궁+알카자쇼◆ 호텔씨푸드+산호섬+농눅빌리지
+코끼리트래킹+안마2시간+시티투어

REAL 마카오 4명출발
마카오 완전일주 4일
7월~9월 매주 수,금요일출발
797,6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76적립
노쇼핑, 마카오 1박 특급호텔 업그레이드
세계문화유산 투어, 덤보레스토랑, 에그타르트 제공

품격 삼색여행
홍콩/마카오/심천 4일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6,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67적립
★나이트투어+베네시안카지노★ 피크트램/빅토리아산정+점보/덤보레스토랑

8명특가 실속 호텔업
대만 타이페이/화련/아류/지우펀/스펀 4일
7/12,30 8/17,21,27 9/10,18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특급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고궁박물관/야시장/해양공원+몽골리안BBQ/샤브샤브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일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단계: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여행금지 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2016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2016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